

「두루미」受難 잦은 것은… 河川汚染과 有關?

한국조류보호협회(회장 金成萬)는 금년 들어 빈발하는 두루미·재두루미의 폐사사건의 빈발통보에 몹시 우울하고 바쁜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월13일 강원도 鐵原의 민통선안에서 죽은 두루미 한마리가 물에 뜬 것을 신고받아 가봤더니 너무나 부패되어 원인규명도 할 수 없어 고이 묻어 주었다고.

지난 4월2일에는 역시 鐵原의 민통선내에서 농부에 의해 두루미 3마리와 재두루미 2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되어 가본즉 죽은지 오래되어 다른 동물에 뜯어 먹혀 내장은 전혀없고 다리와 머리만 남아 있어 원인규명이 안됐다고. 멀리 우리나라까지 날아왔다 죽은 두루미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金회장은 묘도 만들고 비도 세우고 스님을 모셔와 천도제도 지낼 것이라 한다.

두루미의 잇단 수난도 河川오염에 기인된 것이 아닌지 환경생태계서도 예의조사 해야 할 듯.

두루미는 겨울철새로 6월경에 담황갈색의 알을 2개 낳고 연못 냇가 초원에 서식하며 곤충·미꾸라지·미나리 등을 먹음.(잡식성이라고도 한다) 수명은 천년이라 하나 실체는 40~50년 정도며 동부아시아의 특산으로 우수리·中國의 東北部 등지에서 번식하고 한국·중국·일본에서 월동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보호조, 白鶴, 仙禽, 仙鶴, 野鶴, 胎禽, 鶴이라고도 한다.

「두루미」移動經路 밝혀져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월동하여 시베리아로 돌아가는 철새들의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한·일양국의 학계와 조류보호단체서 오래동안 숙제가 되어왔는데 일반국민의 자연보호정신이 높아짐에 따라 이동경로를 밝히는 단서가 포착되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두루미」와 「흑두루미」, 「재두루미」의 경우 우리나라(을숙도)나 일본(이즈미)에서 겨울을 지나는데 낙동강변인 慶北 高

靈군 萊山면에서 겨울을 나는 「흑두루미」는 서해안인 忠南 泰安을 거쳐 北上하고 「두루미」와 「재두루미」는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겨울을 난다음 高靈-南楊州-廣州·鐵原을 거쳐 北上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南楊州군 진접면서는 철새의 이동시기인 지난 89년 3월 재두루미 2마리가 이동대열에서 낙오된채 발견됐으며 廣州군 退村면서는 작년과 올해 3월 연이어 80여마리의 재두루미떼가 나타났었다. 조류학자들은 이 재두루미떼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다 이곳 저수지 등에서 잠시 나래를 접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高靈에서 월동한후 泰山을 거쳐 北上하는 것으로 확실하는 흑두루미의 경로는 작년 泰安군 소원면에서 이동하던 무리에서 낙오된 것으로 보이는 흑두루미가 발견됨으로써 굳어진 것이다.

이즈미서 을숙도까지 隼機 追跡도

일본 野鳥會와 산림청 禹漢貞 박사 등 국내조류학자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위와같은 연구는 두루미의 이동경로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지난 89년 일본야조회와 한국조류학계는 재두루미와 흑두루미가 일본 이즈미서 현해탄을 건너 낙동강 하구인 을숙도까지 날아오는 것을 隼機 추적으로 확인했다. 金成萬 한국조류보호협회장은 「국민들의 자연보호의식의 신장으로 철새동향의 신고가 늘어나 이같은 추세라면 2-3년후에 우리나라를 찾는 주요 철새의 이동경로가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철새 이동경로豫想圖: 4.1. 스포츠서울)

